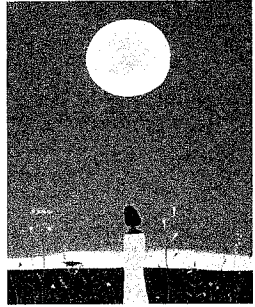


박종화



그래  
어쩌면 난 우물 안 개구리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 
하지만 어떤 길도 포기할 순 없었다  
우물 안에서조차도  
보이는 하늘만이라도  
전부를 사랑하고  
전체를 껴안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

그래  
너의 말처럼 나는 우물 안 개구리였다

그런 내가 싫어 한 번은  
사력을 다해 올라갔었지  
처음 보는 넓고 황량한 벌판에 떠밀려  
끝도 없는 바람에 취해  
온 사방을 눈치 보며 두리번거릴 때 이미  
하늘은 내 가슴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 
슬펐어 난 정말  
붉게 타버린 그  
작은 동그라미 같은 하늘이  
너무나 보고 싶었다

그래  
세상은 다 그런다는 것을 알아버린 순간  
모두가 외면하려드는 우물 안이 좋아졌다  
넓은 하늘을 다 볼 순 없어도  
보이는 하늘만이라도  
전부를 사랑하고 껴안을 수 있다면  
누가 뭐래도  
내 삶은 크고 크다는 것을 알았다  
붉게 타버린 그 동그라미 같은  
작은 하늘을 너무나 사랑했다.



◀그땐 그랬지▶ 이름만으로도 ....  
왼쪽부터 김상진, 김부자, 방주연, 문주란, 이육복, 박일남, 뒤편 유명했던 아나운서 변웅전.  
그냥 이름만 들어도 추억이란 아름다움이 떠 오릅니다.  
가끔은 '그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, 먹고는 살만한지' 별개 다 궁금해집니다. 내게 추억을 남겨준 저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그래야 내 추억도 쓸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

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	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(빌4:13) <b>갈보리교회</b> Calvary Presbyterian Church	교회생활지침 누가 10:37 *자원함 -섬김과 봉사 *익명성 -명예
제9권 41호	기초성경공부이수, 정장으로 예배, 남 이야기 금지	2007년 10월 14일
☎ 369- 5077. Howe St. City(Ak Girls Grammar School Hall)		www.calvary.org.nz

◀하나님! 나의 하나님▶ 기적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

주부편지 2007년 5월



그날, 남편과 함께 집을 나설 때만 해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. 한 달 가까이 중환자실에서 혼수상태로 지내다 나온 남편의 친구네 집을 찾아가는 길이었었습니다. 몸이 점점 굳어지는 병을 얻은 지 열두 해가 넘었는데, 그 무렵이 이런 저런 인생길을 돌아온 그 친구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들은 지 얼마 안 되는 때여서 늘 '왜 그런 일이' 하며 가혹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던 분이었습니다.

산본 산자락 작은 아파트에서 우리를 맞아준 사람은 친구의 아내였습니다. 목에 뚫은 구멍으로 호스를 집어넣어 가래를 뽑아낸 친구의 아내가 누가 왔는지 보라고, 반가운 손님을 한 번만 보라고 말했습니다. 안아 일으켰다가 다시 눕히기를 몇 번, 눈을 깜빡깜빡 하던 친구가 한창을 표정 없이 쳐다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소리 없이 활짝 웃었습니다. 알아본 것입니다. 꼼짝없이 누운 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그였지만, 웃음은 그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선물이었었습니다.

그때 친구의 아내가 그 얼굴을 가만가만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 
"보세요, 병든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예요."

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집의 평화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확실히 알았습니다. 그러니까 친구의 아내는 예수님을 맞는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. 하루 다섯 차례 호스를 통해 옆구리에 뚫은 구멍으로 유동식을 넣어주고, 온 몸을 정성스레 닦아주고 만져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.

그날, 저는 병이 낫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을 보았습니다.  
여전히 삶은 고통스럽지만 슬픔이나 원망으로 오늘을 낭비하지도 않고, 주님의 선하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지만 '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분의 평강' 속에서 사는 친구 부부를 보면서요.

◀말씀따라 행하기▶  
우연이나 운명을 믿지 마라  
주님의 뜻을 물려라  
하나님은 묻는자에게  
가르쳐 주신다.

◀인품따라 행하기▶  
자기 자신을  
싸구려 취급하는 사람은  
타인에게도 역시  
싸구려 취급을 받게 된다

# 주 일 예 배

(\*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)

## 하나님 생각 하는 연주 찬양

목도와 참회의 기도 Pray & Confession	Calvary(성가대)	다 같이
*찬 송 Hymn	23장	다 같이
*신 앙 고 백 Apostle's Creed	사 도 신 경	다 같이
찬 송 Hymn	474장	다 같이
기 도 Pray		임병숙 권사
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	다니엘 3:13-27	인 도 자
성가대 찬양 Choir		나무십자가 성가대
설 교 Sermon	맑고 신선한 젊은 사람들	김성국 목사
찬 송 Hymn	364장	다 같이
헌 금 기 도 Offering Pray		인 도 자
교 회 소 식 Welcome & Announcements		인 도 자
응 답 송 Response Song	여기에 모인 우리	다 같이
축 도 Benediction		김성국 목사

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: \$2,414      총액: \$ 391,863.70

### ◆10월 예배위원◆

일자	기도	주차안내	안 내
7	권광순	최현철 서재오	<현관> 권광순 정희자
14	임병숙		<성전입구> 임혜자
21	임혜자	항존직	<새교우> 이광희 장유진
28	정관영		

### ◆10월의 교회력◆

주 일	모임 행사
7	정기구역예배(12)
14	헌신예배(성가대 17일)
21	
28	종교개혁주일    의투스샬롬 수요찬양(31)

『교회 생활』 2007 신앙생활: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 위해 5분 매일 교회 위해 1분 매일 남을 위해 1분	『교회 등록』 *3주간 예배,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. *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.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
주일예배: 아동, 학생: 오후 1시    수요예배: 7:30 pm	새벽기도회: 금 5:50    청년부: 수요 7:00 pm

1. 교우소식
  - \*<수술 후 회복을 위해 기도해주세요> 김경민 권사(안정실 장로) ☎ 031)798-5509
  - \*<성문밖 헌금>. 김반석, 조재근 집사께서 우리가 드린 성문밖 헌금으로 북한 보육원에 담요, 세탁기를 직접 전달기 위해 출국(12일)
  - \*<김반석 집사> 한국에 회사 설립을 위해 약 2개월간 체류예정
2. 모임: 5여선교회 월례회. 예배 후 모임입니다.
3. Alpha 성경공부: 10주간의 과정을 마칩니다
  - \*<Morning Alpha> 박병민, 박상옥, 이금선, 이기중, 이동술, 이해옥
  - \*<Evening Alpha> 서재오 <항존직 Alpha>
4. 성가대 헌신예배 <일시> 금주 수요예배(7:30pm)
  - \*성가대원들의 열심이 지난 수요일 늦은 밤까지 있었습니다. 믿음은 그런 스펙트럼과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느끼게 합니다. 그리고 성가대원들의 수고에 격려도 하여 주십시오.
5. 『인도자, 구역장 Alpha』 <일시> 10월28일(주일)부터 매주 주일 예배 후
  - \*금년의 인도자, 구역장 임무는 알파공부를 마쳐가며 맞게 됩니다. 내게 주어진 사역을 말씀으로 무장하며 마무리 짓는 보람입니다.
6. 갈보리동호회 친선골프대회 <일시> 20일(토) 오전 9시
  - <장소> Takapuna Golf club <참가비> \$40(식사, 간식, 물 포함)
  - <대상> 갈보리 남 여 교우 및 외부초청인 <신청> 박영태집사 528-0866
  - \*설교준비만 아니면 참석하여 오래전의 Bogey 플레이 실력으로 상 하나쯤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. 참석하셔서 좋은 봄날을 즐기는 이번 주말 되십시오
7. 성전건축을 위해 늘 기도하여 주십시오
  - \*우리의 교회는 우리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지어져야 합니다. 기도드릴 때마다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한 기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

◀착한 시인들▶ 밤잠  
함민복

기름 치고 밥을 비벼먹습니다  
동치미 국물은 없고  
그냥 따듯한 물 마시며  
그런데 잠 일찍 깬 쥐가  
쫓고 배고팠던지  
천장을 울리며 덜덜덜 달려옵니다

아니 아니 시집 못 간 처녀 쥐가  
아래층 총각 혼자 밥 먹는다고  
나무 조각 물고 와  
뜨득 뜨득득 소리를 내줍니다

음식 냄새 오래가  
미안한 새벽입니다

7. 새벽기도회  
<매주 금요일 새벽 5:50>  
\*새벽닭이 운다고 마을 사람 모두가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. 그러나 그 새벽에 일어나는 농부의 복은 분명 논과 밭에서 자라고 있습니다.

